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planning in Canada

David Boisclair, Annamaria Lusardi, Pierre-Carl Michaud, October 2015,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pp.1-20

본 연구는 캐나다에서 은퇴계획과 연계하여 어떻게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다른 국가와 캐나다의 국제비교를 통해 캐나다 금융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금융교육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은퇴 후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와 비교할 수 있는 설문지를 통해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캐나다의 금융교육과 은퇴계획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교육 및 은퇴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노인들의 빈곤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노인 빈곤이 현재와 미래의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소득자 이하 대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0%에서 90%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평균소득자 이상의 소득자들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50%이하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경향으로 확정급여형연금제도(Defined-benefit)가 확정기여형연금제도(Defined-contribution)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이다.

제안된 개혁은 두 가닥을 따르고 있다. 첫 번째는 노후소득보장체계 2층을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때때로 노후소득보장체계 1층과 3층에도 집중하고 있다. 캐나다의 금융 교육 수준은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면서 필수 프로그램의 확장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은 캐나다인의 금융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가닥은 자발적인 저축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점차적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일부지방에 시행되어지고 있다. 각 지방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제정되는 PRPPs(Pooled Retirement Pension Plans)는 민간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그룹의 투자 옵션 개별 계정이다. 계정은 자동 등록 및 기본 옵션과 같은 추가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옵션은 금융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금융 교육은 이러한 계정에 은퇴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계획은 금융 교육과 강하게 관련이 있다. 이 결과는 많은 나라에서 발견 되었으며, 캐나다의 추정치는 다른 나라의 추정치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금융 교육수준이 낮은 캐나다에서 금융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결론 맺고 있다.

Pension refion in an OLGmodel with heterogeneous abilities

■ Tim Buyse, Freddy Heylen, Penaat Van de Kerckhove. October 2015.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pp.1-29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인 금융 실용성을 위한 관심사는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의 의제에서 높은 연금개혁에 놓여있다. 이러한 도전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높은 취업, 생산성, 성장의 필요에 따른 협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빈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4기간의 OLG모델에서 연금개혁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기간, 인적자본, 소득 그리고 복지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세대를 젊은층, 중장년층, 장년층 그리

고 은퇴세대로 나누고 각각 세대에서 개인의 능력을 고, 중, 저 세 분류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능력의 차이는 초기에 다른 레벨과 다른 학습능력이 표기 된다.

확장은 서로 다른 그룹의 소득과 복지 수준에서 연금 개혁의 효과를 살펴 볼 수 있다. 연금급여는 소득연계와 정액 그리고 기본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각 구성요소의 크기는 다른 능력에 따라 개인이 다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특정 소득 비례연결 시스템보다 PAYG시스템이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YG시스템은 과거의 개인적인 노동 소득에 연금 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인적자본, 생산성, 미래세대의 전반적인 복지에 좋은 효과를 생성한다. 또한 정부 예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된다.

PAYG시스템의 총 효율성 향상을 유지시키면서 낮은 능력의 복지손실과 높아지는 불평등의 문제를 논쟁하기 위한 선택적인 응답을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본연금이나 최저연금을 PAYG시스템으로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총 고용과 총 복지에 부정적일 수 있다.

낮은 능력 개인의 노동 공급과 높은 연금 지출의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정부의 세금 인상을 야기 시킨다. 낮은 능력의 개인을 위한 연금과 개인의 노동소득의 사이의 기만할 연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강력한 자신의 소득대체율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줄음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낮은 노동소득의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정은 연금평가기초에

서 과거노동소득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Infant Mortality in Iranian Children: A Longitudinal Econometrics Analysis

■ Satar Rezaei, Behzad Karami Matin, Enayatollah Homaie Rad,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s*, 3(1.1), pp.375-380.

본 연구에서 유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은 건강상태와 웰빙의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유아사망률이 1,000명 중 5명인데 반해 개발도상국의 경우 1,000명 중 51명에 육박한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유아사망률의 요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란의 사회경제학적, 인구학적, 건강관련 요인 중 유아사망률과 연관되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1967년부터 2012년까지 Central Bank of Islamic Republic of Iran(CBI)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란의 유아사망률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1967년부터 2012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일인당 국내총생산, 1,000명 당 의사 수, 여성의 노동 참여율, 시골 거주 비율, 개인의 교육기간과 이란의 유아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유아사망률 모형을 사망률 모형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사망 모형은 선형이 아니므로 로그-로그 함수 형태(log-log functional form)를

이용한 비선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합계출산율과 시골 거주 비율이 유아사망률과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1,000명 당 의사 수와 개인의 교육기간은 유아사망률과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에,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유아사망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유아사망률과 합계출산율, 1,000명 당 의사 수, 시골 거주 비율, 개인의 교육기간은 강한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결정에 있어 어떻게 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킬지에 대한 유용한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On the age-specific correl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 Uta Brehm, Henriette Engelhardt, 2015, *Demographic Research*, 32(23), pp.691-722.

198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과 여성의 노동참여(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LP)의 상관관계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사회와 노동시장 정책 및 가치와 태도 변화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특정 연령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나라별 이질성이라는 측면은 무시되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1985년부터 2010년 사이에 17개 OECD 국가의 자료로부터 20세~39세를 4개의 나이 그룹으로 균등하게 나누고, 각각의 지연(lagged) FLP를 매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임의적 절편(random intercept)과 임의적 계수 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을 적용하였다. 이는 Beck and Katz(2007)의 시계열 횡단면 자료에 적용한 부분을 따랐다. 모형 분석의 결과로 나오는 추정된 기울기와 절편으로 효과성과 나라의 이질성을 평가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1985년 이후 FLP와 TFR 사이의 상관관계가 증가한 요인이 연령별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참여 사이의 여러 관계로 설명된다고 말하고 있다. 제일 어린 나이의 그룹은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참여 모두 감소한 반면, 나라별 효과는 증가하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의 그룹이 나라

별 변동이 가장 크지만, 출산에 대한 결정은 노동 시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조적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여성 그룹은 출산과 노동 참여가 가장 양립되지 않음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 가장 낮은 양립을 보이다 이후 이 효과가 나아졌다. 그리고 연구 대상 중 30대 초반만이 나라별 변동이 거의 없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출산율과 나라의 이질성이 고려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무리하고 있다.